

도교육감 선거 '4파전' 진행별 단일화가 변수

현장·경험·개혁·행정 등 강조 '맞대결'



유성동

이남호

천호성

황호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4파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현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차기 교육 수장을 둘러싼 경쟁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유성동,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천호성 전 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다. 이들은 '현장성'과 '경험 개혁성' '교육행정 전문성'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14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공공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 등을 통해 현장 교사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삼고 있지만 조직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확대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전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대학-지역산업'이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 총장, 거점국립대 총장 협의회 회장, 전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지역 인지도와 정책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현장 경험이 타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유·초·중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천 교수는 교사 출신으로 전북교육의 '체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진학 진로교육원 신설 △청렴·공정 행정 확립 △지역 소멸 적극 대응 △교육 활동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진보 성향 표심을 공략 중이다. 그러나 과거 칼럼과 기고문 '상습 표절' 논란에 이어 저서 '천호성의 천

가지 생각'에 대한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덕성과 신뢰 문제가 선거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전 부교육감은 도교육청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 평가된다. 그는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 경력 등을 통해 중앙과 국제 교육정책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초등과 중등 교육 현장 경험도 갖추고 있어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후보 가운데 유일한 행정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 4명 모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진영별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다. 과거 선거에서도 후보 난립과 단일화 과정이 막판 판세를 흔든 전례가 있다. 또 최근 뉴시스 전북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없음'(7.4%)과 '잘 모름'(12.9%) 응답을 합친 부동층이 20.3%에 달해 선거 구도가 아직 고착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이력과 강점을 내세워 경쟁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정책 대결과 여론 지형 변화에 따라 판세는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뉴시스

'전북에듀페이' 올해도 모든 학생에 지원

초1~고3까지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지급
교육의 공공성 강화·복지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6만 3,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서 총 238억여 원의 '전북에듀페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이다. 교육과정 단계별로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하며, 전북교육청이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기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0만원, 중·고등학교 15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2~5학년, 중·고2학년, 특수

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15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 6학년, 중·고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 10만원, 중·고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내 학교에서 화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2026년 1월부터 학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초·최대 30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으로 최대 60

만원이다. 올해는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지원 금액이 다소 감액됐다. 전북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한층 덜었다. 입학지원금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으로,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교밖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듀페이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장학단 학교인정과정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베트남 뉘이탄대학교 국제협력 MOU

문화융합아카데미, 기록관리학과 함께 학생 중심 교육 확대

전북대학교 문화융합아카데미연구소(소장 김진 교수)와 기록관리학과(학과주임 오효정 교수)가 최근 베트남 남다낭 소재 뉘이탄대학교 언어·인문사회학부(한국어학전공)와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뉘이탄대학교는 2026년 기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THE 세계대학영향력 평가 601~8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베트남의 대표적인 사립 명문대학이다.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북대 문화융합아카데미연구소는

최근 4년간 국제학술포럼 JIC(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기록관리학과 역시 글로벌학회30 사업 지원을 받아 2025년 베트남 호치민 반히엔대학교와 글로벌 PBL(Project-Based Learning) 캡스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국제 공동교육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베트남 현지에서 연구교수로 파견 중인 양동민 교수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MOU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공동 목표로 한 실질적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첫 실천 사업으로 올여름 글로벌 PBL 캡스톤 프로젝트 '로컬 스토리텔링(Local Storytelling)'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과 국제 협력 경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대학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

"AI 시대, 도전·융합·윤리 갖춘 인재로 성장"

전북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3738명에 학위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3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부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본부에서 삼성문화회관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의 졸업식사와 내·외빈 축사가 이어졌고, 우수 졸업생 등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133명의 박사과 661명의 석사, 2,884명의 학사 등 모두 3,738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주기쁨(인문대 국어국문학과) 학생을 비롯한 118명의 학생이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고, 핵심인재상에는 김서연 학생(사범대 국어교육과) 등 57명, 우수 연구상에는 마이미 학생(대학원 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 등 60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양오봉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전북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3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

학생들에게 AI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과 배움, 융합적 사고와 공감 능력,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양 총장은 또 "전북대학교는 1947년 개교 이래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도 대형 국제사업 유치와 교육·연구 혁신을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전북대학교의 역

사이자 성과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이제 여러분은 전북대 동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북대학교의 이름이 빛나길 바라며,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대,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 성료

총 74명 학위 수여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0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66명이 학사, 4명이 석사, 4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사는 국제교류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의 학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지역사회 및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지리한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를 졸업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학위수여식은 대표 학생 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졸업생 소개, 내·외빈 축사, 축하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으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 트랙과 영어 트랙 등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연구 과정인 한국어학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며 국제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재훈기자

2025년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

익산·순창 '최우수', 군산·김제·진안·부안 '우수' 선정
전년대비 성취율 9.8%p 증가... 정책 추진실적 향상 등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익산·순창 교육지원청을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군산·김제·진안·부안 교육지원청을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역량을 진단해 발전 점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북 교육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이번 평가의 목적이었다.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지역 규모와 교육여건 차이를 감안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수업혁신 △학력신장 △책임교육·돌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행정 효율화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및 학교지원 우수사례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정량평가 결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전체 19개 지표 중 평균 18.1개를 통과해 95.5%의 성취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성취율 85.7% 대비 9.8%p 증가한 수치로,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 추진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평가에서는 익산지원청이 다문화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밖돌봄을 주제로 한 다(多) 가치 공존, 더 (THE) 깊은 존중: 익산형 교육안전망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학력향상 지원, 미래교육환경 조성, 정주여건 강화, 교육복지 확대를 담은 '지역을 배움의 교실로: 지자체와 공공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순창 교육'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10대 핵심과제와 주요 정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지원청별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간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책과 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디지털 튜터 지원 도내 250개 학교로 대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5개교 규모로 운영되던 디지털 튜터를 올해는 250개교로 확대 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튜터'는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및 AI 기반 학습 활동을 현장에서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수업 지원,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학생 맞춤형 학습 활동 지원, 스마트기기 관리 및 활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은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디지털 튜터 양성 과정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요청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마련, 디지털 기반 수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